

A Tour Some Place

의원역량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국외(대만) 연수 결과 보고

[2023. 9. 17. ~ 9. 21.]



목포시의회

■■■■■■ **목 차** ■■■■■■

I. 연수목적	4
II. 연수개요	4
III. 연수국가 현황	5
IV. 주요 방문지 견학 및 비교	7
① 용산사	7
② 101타워 전망대	9
③ 예류지질공원	11
④ 국립고궁박물관	13
⑤ 스린야시장	15
⑥ 태로각협곡	17
⑦ 중정기념당	19
⑧ 지우편	21

의원역량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국외(대만) 연수 결과 보고

I. 연수 목적

우리나라와 비슷한 동양문화권인 대만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여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견학함으로써 우리시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접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고자 함.

II. 연수 개요

- 기 간 : 2023. 9. 17.(일) ~ 9. 21.(목) [4박 5일]
- 방문국 : 대만(타이페이)
- 인 원 : 8명(의원 5, 의회사무국 2, 집행부 1)

직 위	성 명	주요 임무	비 고
연수단장	박용준	연수 업무 총괄	의원
단 원	김귀선	관광자원 활용 사례 및 자료 조사	의원
	이동수	관광자원 활용 사례 및 자료 조사	의원
	박창수	관광자원 활용 사례 및 자료 조사	의원
	백동규	관광자원 활용 사례 및 자료 조사	의원
	나하운	연수 및 의정활동 기록 및 지원	의회사무국
	김하준	연수 일정 관리 및 지원	의회사무국
	백종근	관광 시책 개발 및 사례 연구	관광과

○ 연수일정

일 자	주요 일정		세부 일정	비 고
	방문지	이동(교통)		
< 1일차 > 9. 17.(일)	타이페이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사(도교사원) ◦ 101타워 전망대 	
< 2일차 > 9. 18.(월)	타이페이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류지질공원관리소 ◦ 대만 입법원 	
< 3일차 > 9. 19.(화)	타이페이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농장 ◦ 고궁박물관 ◦ 스린 야시장 	
< 4일차 > 9. 20.(수)	타이페이 화롄	전용차량 열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페이역 ◦ 태로각협곡 ◦ 원주민 문화관 	
< 5일차 > 9. 21.(목)	타이페이	전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정기념당 ◦ 연수 소감 및 의견 교환 	
		타이페이 공항 → 인천공항 → 목포시의회 도착		

Ⅲ. 연수국가 현황

○ 개 요



- ◎ 국 호 : 대만(臺灣, Taiwan), 공식 국호는 “中華民國(Republic of China)
- ◎ 위 치 : 동남아시아
- ◎ 면 적 : 36,190km²(한반도의 1/6, 남한면적의 1/3)
- ◎ 기 후 : 아열대 동북 몬순 기후권
- ◎ 수 도 : 타이베이(서울의 약 1/2)
- ◎ 인 구 : 약 2천3백만명
- ◎ 민 족 : 민남인(74%), 외성인(12%), 객가인(12%), 원주민(2%)
- ◎ 언 어 : 공용어(중국어), 상용어(민남어, 객가어, 원주민어)
- ◎ 종 교 : 불교(35%), 도교(33%), 개신교(2.6%), 천주교(1.3%), 이슬람교(0.2%) 등

○ 세부 현황

1) 위 치

- 대만은 태평양의 서쪽, 아시아 대륙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으로는 한국과 일본, 남으로는 필리핀과 인접하여 있어 상업 및 교통의 중요한 허브라고 볼 수 있다.
- 대만은 타원형 모양의 섬이며, 길이는 약 394km, 넓이는 약 144km, 총 면적은 약 3만 6000km² 으로 제주도 면적의 약 20배이다. 시차는 대만이 한국보다 1시간이 느리다.

2) 기 후

- 대만에는 고산, 구릉, 계곡, 평원 등 각종 지형이 있다. 대양과 대륙 중간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회귀선이 경유하는 지점이므로, 대만에는 관찰 가치가 높은 기후 형태가 많이 형성되었다.
- 북부는 아열대에 속하며, 남부는 열대기후에 속한다. 고산지형으로 인해 수직 기후변화가 큰 대만은 열대, 아열대, 온대, 한대의 4가지 기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히 세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 봄, 가을 기후는 시원하고 쾌적하며, 여름은 낮 기온이 높으므로 더위에 조심해야 하며 오후에 소나기가 많이 오며 7~9월은 태풍이 오기도 한다.

3) 문 화

- 중화민국의 전통문화를 현재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다.

4) 언 어

- 만다린(북경어)은 대만의 지정국어이며, 대만인들 다수가 민남인이므로 민남어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이 있어서 일본어를 구사하기도 한다.
- 영어와 중국어는 국민교육의 중요한 교과과정으로 속하기도 한다.

5) 교 육

- 대만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한국과 같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IV. 주요 방문지 견학 및 비교

1 용산사

기관소개	용산사는 타이베이 사원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하며 가장 전형적인 대만 사원이다. 불교, 도교, 유교의 중요한 신을 함께 모시는 종합 사찰이다.
방문목적	도심 속 사원이 도시 경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고, 목포시의 사찰과 근대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견학요약	지역의 유서깊은 종교시설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

□ 견학내용

- 오래된 사원에서 관광객들의 끊이지 않는 향불 행렬과 수많은 사람들이 점괘를 보며 희로애락을 느끼는 모습에서 지역의 유서 깊은 종교시설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산정동의 ‘카톨릭성지’와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소재한 ‘경동성당’, 용해동에 소재한 ‘보현정사’처럼 역사가 오래된 성당이나 사원을 연구하여 전국의 종교인은 물론,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를 모색해보는 정책 연구 및 상품 개발이 필요함.

□ 현장사진



< 용산사 전경을 둘러보고 있다 >

< 용산사의 역사 설명을 듣고 있다 >



< 용산사 방문 기념 단체 >



< 용산사 방문 참배객 행렬 >

2 101타워 전망대

기관소개	타이베이 국제 금융 빌딩'이라는 정식 명칭보다는 '타이베이 101 빌딩'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이곳은 항상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타이베이의 랜드마크이다.
방문목적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유달산 전망대에 접목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성 모색
견학요약	지역 랜드마크의 위상과 파급력 확인

□ 견학내용

- 지진, 특히 바람에 건물이 흔들리는 안전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660톤 규모의 거대한 추(제진장치, 댐퍼)가 인상적이었음.
- 또한 흔히 볼 수 없는 거대 규모의 추 같은 안전시설물을 캐릭터 (댐퍼 베이비)로 만들어 관광마케팅에 활용한 점이 특색있고 연구 및 도입해야 할 사례라고 판단됨.
- 우리시의 '해상케이블카'와 '고하도 전망대'는 101타워와 비교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장사진



< 101타워 제진장치 무게추(댐퍼) >



< 제진장치를 캐릭터화한 조형물 >



< 101타워 방문 기념 단체 >

3 예류지질공원

기관소개	1천 ~ 2천5백만년 동안 자연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기암괴석이 가득한 공원
방문목적	유달산 조각공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 연구
견학요약	사진 명소로써의 관광지 인기 확인

□ 견학내용

- 넓고 부드럽게 물결치는 해안과 맞닿아 있는 이 신비로운 공원은 관광지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취향에 안성맞춤인 곳으로 보였음.
- ‘유달산 조각공원’은 인위적인 조형물이란 점에서 다르지만 예류지질공원과 비슷한 유형의 관광지라고 판단되며, 유달산을 배경으로 하는 축제를 개최하거나 개발할 때 사진 콘테스트처럼 사진을 테마로 하는 상품과 이벤트를 연구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관광안내 리플렛 게시대를 벽면에 설치한 것은 바닥에 위치한 게시대보다 존재감과 시인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느꼈고, 관광객 또한 리플렛에 대한 접근과 인지가 편할 것으로 생각됨.
- 자연풍화되어 침식되고 있는 여왕머리바위와 갯바위를 비교하여 침식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함께 토론함.

□ 현장사진



< 예류지질공원 형성 배경 설명을 듣고 있다 >



< 예류지질공원 전경 >



< 리플렛 게시대(3개 국어로 외국인을 위한 노력이 보임) >



< 예류지질공원 방문 기념 단체 >

4 국립고궁박물관

기관소개	중화민국 행정원 소속의 국립박물관이며, 소장품의 수는 69만 7,490개나 되어 세계 4대 박물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방문목적	자연사박물관 등 우리시의 박물관 자산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설 견학
견학요약	박물관 견학이라는 교육관광상품의 가능성 모색

□ 견학내용

- 장개석이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이동할 때에 중국 유물의 약 80%를 가지고 와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임.
- 세계 제4대 박물관이라는 명성답게 진기한 유물들이 가득했음. 또한 녹색 기와와 황색 벽면의 특이하고도 웅장한 외관도 방문 관광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음.
-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국적이 다양하고 그만큼 박물관 시설 내부에서의 소음이 적지 않은 탓에 주파수가 다른 헤드셋이 관광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박물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교육이라고 할 것임. 우리시에는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해양박물관, 생활도자박물관, 근대역사관, 문학관 등 다양한 박물관과 전시관이 많이 있음.
- 여러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강점으로 판단되며, 현장학습을 자주하는 유아~저학년 세대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소망하는 성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교육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함.
- 아쉬운 점으로는 안내를 하는 관광가이드의 설명이 일부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 방문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존재함.
-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안내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장사진



<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품 관람 >



< 국립고궁박물관 방문 기념 단체 >

5 스린야시장

기관소개	대만 타이베이 스린구에 위치한 대만 야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곳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방문목적	대만의 대표 야시장과 목포의 야시장을 비교하여 발전 방향과 가능성 연구
견학요약	야시장의 관광상품성 재발견

□ 견학내용

- 타이베이 사람들에게 야시장은 퇴근하는 길에 잠시 들러 저녁을 해결하는 곳인 동시에, 손주머니가 가벼운 연인들의 부담 없는 데이트 코스인 것처럼 보였음.
- 그만큼 야시장이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하고 편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짐.
- 실제로 스린야시장은 국적을 막론하고 어떤 여행자든지 모두 만족할 만한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 놀거리가 가득했음.
- 우리시의 야시장이 빛을 보려면 관광객의 본격적인 유입 전에 시민의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등의 즐길거리를 만들어내야 함.
- 경우에 따라 시에서 직접 업종을 선별하고 통제할 필요성도 있음. 동시에 청년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 시장거리가 짧고 활력 넘치는 골목이 되도록 지원해야 함.
- 야시장은 여행자들이 방문 도시의 활기와 감성을 느끼고 가는 대표적인 장소이자 관광상품임. 지역의 버스커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시장 버스킹 같은 길거리 공연과 함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목포시 소유의 유휴 공간을 악기연주 등 공연을 주로 하는 버스커들에게 대여하거나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장사진



< 인파로 가득한 스린야시장 >



< 스린야시장 방문 기념 단체 >

6 태로각협곡

기관소개	중화민국 화롄현과 타이중시 그리고 남투현에 걸쳐 위치하며, 일제시대인 1937년에 차고태노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1986년 대만의 국립공원 중 4번째로 지정이 되었다.
방문목적	관광지 안전 시설 비교
견학요약	천연자연경관의 관광자원화와 안전 시설의 중요성 확인

□ 견학내용

- 태로각협곡의 면적은 약 920km²라고 함.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고 가파른 대리석 협곡으로 이루어져있어 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자아내게 함.
- 협곡 사이로 흐르는 물의 색깔은 진한 회색빛으로 매우 탁한데 그 이유는 석회 성분이라고 함. 이러한 대자연의 신비로움이 위험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 태로각협곡은 특유의 험한 지형 때문에 방문자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 개방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방문객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천연 자연으로 이루어진 국가대표급 관광명소가 천연 자연으로 만들어진 위험으로 개발의 한계점을 가진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으며, 관광지의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크게 체감하였음.
- 우리시 주요 관광지와 유달산 등지의 둘레길이나 산책로의 로프 난간 등도 위험도와 안전도를 반영하여 보수할 필요가 있음.
-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시간 동안은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만 입장할 수 있게 하는 특이한 시스템을 확인함.

□ 현장사진



< 태로각협곡의 탁류 >



< 태로각협곡의 전경 >



< 태로각협곡의 좁은 인도와 난간 >

7 중정기념당

기관소개	국립국부기념관, 국립고궁박물관, 용산사와 함께 타이베이시의 4대 관광 코스로 꼽힌다. 무게 25t의 장개석 총통 동상을 비롯하여 전시실에는 사진과 총통 생애의 기념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방문목적	국가기념비적인 인물을 기리는 공간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우리시의 김대중기념관과 비교
견학요약	지역의 역사적 인물 발굴과 관광자원화의 필요성 확인

□ 견학내용

- 중정기념당은 중화민국의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사망하자 중화민국 행정원이 국가적으로 기념하고자 1975년 6월에 기념당의 건설을 결정하였다고 함.
- 국립국부기념관, 국립고궁박물관, 용산사와 함께 타이베이시의 4대 관광 코스로 꼽히며, 무게 25t의 장개석 총통 동상은 방문자의 규모만큼 대만에서 그의 위상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하게 함.
- 매 시각 정시에 이루어지는 근위병 교대식은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볼거리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해보였음.
- 중정기념당의 외관 건물은 타이베이시의 랜드마크로써도 충분해보일 정도로 웅장하고 독특한 모습이었음.
- 현재 대만 입법부를 중정기념관으로 옮기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에는 볼 수 없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음.
- 아울러 수많은 관광객들이 기념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시의 관광지 개발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고민해보았음.
- 중정기념당 주변은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음. 김대중기념관도 뒤쪽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장사진



< 중정기념당 근위병 교대식 >



< 장제스의 생애 설명을 듣고 있다 >



< 중정기념당 방문 기념 단체 >

8 지우편

기관소개	지우편(九份)은 대만 북부 신베이시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모든 거리는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방문목적	계단이라는 특징이 비슷한 시화마을과 비교
견학요약	계단으로 이루어진 마을

□ 견학내용

- 지우편은 계단으로 이루어진 마을답게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높은 곳에 형성된 마을이었음. 우리시의 유달동 시화골목과 아주 유사한 환경으로 보임.
- 좁은 골목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가게들은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들을 제공하고 있었고, 골목이 좁은 탓에 관광객의 시선을 온전하게 받고 있었음.
- 좁은 골목과 계단, 그리고 고지대라는 특징을 가진 이 마을은 영화 (비정성시, 1989년)촬영지로도 유명함.
- 우리시 시화골목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유치하여 전국에 많이 알리고, 스린야시장 같은 시에서 통제하는 업종과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장사진



< 지우편은 계단과 홍등으로 특색있는 촬영지로 유명하다 >



< 지우편 방문 기념 단체 >

V. 연수 참여자 소감문

01 계획의 도시 타이페이 ‘101 타워에서 바라 보다’

박용준 의원

- 4박 5일 동안 국외연수로 대만을 방문하였습니다. 목포시의회 연구단체 ‘어투어썸플레이스’ 소속 회원으로 조를 이루어 대만이 보유한 관광 자원을 어떻게 우리시에 활용하여 관광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지 비교·시찰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101타워에 대한 소감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 타이페이시 중심에 자리한 101타워는 101층에 509m의 빌딩입니다. 89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에서는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는 자기장 초고속 엘리베이터(1,010m/m)를 자랑하며 관광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워 상층부에는 최근들어 대만에 잦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공모양으로 무게추의 원리를 이용한 구조물로 제진설계를 하여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립되었습니다.
- 반면, 우리나라의 롯데타워도 제진을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이지 않게 설계하여 그 구조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대만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보안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CCTV와 인력배치로 훼손 되지 않도록 하고 모두 숨기려고 하는 부분을 역발상으로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 특히 재산권이 공공복리와 상충하는 경우에도 신·구건축물이 공존하게 하는 점과 재산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재산권도 보장하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새것으로만 획일화되어있는 모습을 추구할 필요없이 기존의 건축물을 유지·보수하여 조화를 이루도록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대만은 기후적 특성(뜨거운 햇살, 스콜 등)과 시민들의 건의가 있어 법적으로 건물 2층에 대한 규제로 보행로까지 건물이 튀어나오도록 설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도치않게 이런 법적인 제제가 타이베이시의 모든 건물에 통일감을 주어 타이페이 시민의 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연수 기간동안 유익하였고 무엇보다도 모두 건강하게 복귀하여 금번 대만 국외연수는 성공적인 연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창수 의원

- 대만은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우리나라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잘 지켜진다고 평가받는 나라입니다. 대만의 종교는 불교, 도교, 유교, 민간종교로 나누어 지는데 불교와 도교가 비슷한 비율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산사는 타이페이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1738년 건립, 지진과 전쟁으로 여러차례 소실되었다가 1957년 재건하여 도교, 불교, 토속신 등을 모시며 각 종교간의 특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 대만은 생활에 관련된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같이 세계에서 편의점이 잘되고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는 은행, 우체국, 공공요금 지불 등의 업무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사찰을 방문하고 바로 옆에서 편리하게 장을 보기위해 사찰 주변에 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용산사도 근처에 야시장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찰 주변으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사찰 내부의 곳곳에는 점괘 또는 운세를 볼 수 있는 나무조각으로 된 달조각이 구비 되어있었습니다. 달조각은 쌍으로 되어있고 한면에 빨간색을 칠해두고 빨간색이 나오는 개수에 따라 운세를 보거나, 믿음에 대한 신실함을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빨간색이 나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0 ~ 2개로 3가지이지만 모든 경우가 꾸준한 종교활동을 장려하는 점괘라고 합니다.
- 대만 사람들은 생활과 관련된 종교적 믿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들은 각각 담당하는 생활영역이 있었습니다. 출산, 취직, 승진, 연애 등 우리나라에서 점을 보는 민속신앙과도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 잡으면서도 높은 빌딩들사이에 자리잡은 고찰, 그리고 그 주변 바쁜 야시장 모습과 더운 날씨에도 오밀조밀 성실하게 움직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여유로운 대만 사람들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 연출하는 풍경은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김귀선 의원

- 특이하고 아름다운 암석들을 보유하고 있는 예류지질공원은 다툰산의 여맥이 바다로 뻗어져 나와 형성한 곳입니다. 바람과 파도의 침식 그리고 지각 운동으로 버섯 바위, 해식동, 두부 바위, 촛불 바위와 돌개구멍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독특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 예류지질공원에서 곳 지형 경관 구역에 진입하기 전에는 이제 5년뒤에 자연풍화로 사라지게될 위기에 놓인 ‘여왕 머리 바위’와 ‘귀여운 공주 바위’를 본 따 만든 모형이 있었습니다. 목포시의 갯바위도 자연 풍화와, 침식으로 점차 그 형상을 잃어가고 있는데 대만의 사례처럼 모형을 제작한다든지, 접착제나 실리콘 등 화학적 요법으로 모양을 유지하게끔 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대비해야됩니다.
- 3구역으로 이루어진 해안 곳으로 가면 첫 번째 구역에는 독특한 모양이 돋보이는 버섯 바위, 촛불 바위가 있고, 두 번째 구역에는 여왕 머리 바위, 용 머리 바위, 킹콩 바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역은 이십사효 바위, 진주와 보석 바위 등 독특한 암석들 자리하고 있는 파식 대지로 되어 중요한 생태 보호 구역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만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 화련 ‘태로각 협곡’은 평균 해발 2,000m의 험준한 산과 바위에 첩첩이 둘러싸인 대만에서 4번째로 지정된 국가공원입니다. 이곳의 원주민이었던 ‘타이야르족’의 용감한 족장이었던 ‘타로코’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협곡 사이로는 탁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대리석이 침식되어 깨끗한 물과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있는 협곡은 화강암이 아닌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세계 많은 암벽등반인이 오를 수 없는 산이며, 연중 강수량이 많은 대만의 기후적 특성과 암질의 특성상 산사태의 규모가 크고 잦기 때문에 등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특히, 태로각 협곡의 명소 중 장춘 폭포와 연자구에서는 자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센 물살의 괴롭힘에 깔려나간 바위벼랑들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산 속에 뚫린 작은 터널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과 출렁이는 다리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산과 강, 바다가 있는 우리 시도 자연을 활용하고 조화를 이루고 힐링할 수 있는 유원지와 같은 관광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백동규 의원

- 대만의 스페인에는 천등 날리기 체험지가 있습니다. 철도길에서 천등을 날리는 체험인데, 천등에 4인 1조로 각각의 면에 자신이 기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붓으로 작성하고 기름종이에 불을 붙혀 등을 띄워보냅니다. 과거 목포역이 교통의 요충지였던 사실로 폐철도길이 많은데 기후적 특성으로 천등 날리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산정근린공원의 철도길 공원과 같이 폐철도길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스페인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일정하여 대만에서 천등 날리기에 적합한 몇 안되는 곳 중 한곳이며, 이곳은 관광업 외에 소득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계가 되는 중요한 일자리가 되어있었습니다. 바람이라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자연의 훼손없이 관광자원을 개발하게 되면서 대만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등 날리기를 통해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조합이 체험장을 운영하게 하여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 1999년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생산적 복지는 일과 복지의 합성어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생산 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기존의 시혜성 복지에서 확대 발전된 개념으로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영역에 도입되었습니다.
- 스페인의 마을조합이 천등 날리기 체험장 운영에 참여함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관광객들의 체험 수요를 늘리기위해 자연스럽게 서비스도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천등날리기 체험당시에 직원이 사진촬영 서비스를 해주었는데 여러 가지 유행하는 포즈와 구도를 잡아주면서 스페인 처음인 우리 일행들에게 큰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을 유료에서 무료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개입의 운영보다 민간에 맡긴 운영의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 대만 스페인의 천등 날리기 체험장 운영 사례를 보면서 목포시에서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거리와 건물들에 대해서 위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자원-생산적복지-마을조합-효율성-관광활성화로 관주도의 관광정책에서 민간주도의 관광사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 원산지혜농장은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재배 시설을 갖춘 스마트팜 운영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의 수직(14층) 도시형 농업회사 중 하나이며 말레이시아, 덴마크 등과 협력 관계를 맺는 등 스마트팜 선두기업으로 발전하고있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농장입니다.
- 70종의 채소를 연중 재배하고 있으며 수직재배시설을 통해 일일 약1.6t을 생산하고 연간 38억원의 매출을 올리고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 해서 조금 편한 것 뿐이지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직원수는 1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 농장은 10년간의 집약된 데이터를 통해 조명의 색과 세기에 따른 빛의 조절, 미생물과 미세산소 입자 기술을 통한 산소의 농도 조절로 미생물 발효 액체비료 생산, 탄소발생을 최소화 하는 관개시스템, 흙이 필요하지 않은 수경재배 등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양질의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해 작물의 재배환경과 발육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수직농법은 햇빛 대신 식물재배 전용 발광다이오드를 설치해 인공태양을 대신하도록 하는 “완전제어형” 수직농장 시스템을 가동하여 엄격한 관리하에서 품질이 좋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 수직재배시설이 생산을 하면 각지의 마트에 납품을 하고, 건물 내부에 우리나라 로컬푸드매장과 같이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대만의 일반 시장 보다는 비싼 편이었습니다.
- 스마트팜 경영을 위해 대만 정부에서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으나 세금혜택, 농업지원, 융자 등의 지원은 있었습니다. 빛과 습도, 온도 작물의 재배환경을 모두 컨트롤하여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작물재배를 위해 기존 넓은 땅과 많은 노동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가 좁은 땅,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